



■ 이달부터 확~ 바뀐 보험체계

종신·정기·변액 가입 지금이 적기

국내보험사들이 지난해 말 발표된 보험개발원의 제5 경험생명표에 따라 4월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를 일제히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때 회사별 보장 내역과 보험료 조정을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종신·CI 보험 인하, 연금 수령액 감소=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명은 3일부터 가입 2년 이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삼성유니버설종신보험의 보험료를 20% 인박 인하한다.

또 치명적 질병(CI)보험인 삼성리빙케어보험은 10% 가량 내린다.

이는 보험 가입자의 생존율이 증가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특약 보험료는 오르게 돼 주보험과 특약에 함께 가입할 경우 실제 인박 폭은 작아지게 된다.

대한생명의 경우 대한변액CI보험은 납성만 2~3% 내리고 여성은 별다른 변동이 없으며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은 5~7% 인하한다.

대한생명의 저축성보험은 예정이율이 3.0%에서 3.25%로 상향 조정되면서 만기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알리안츠생명명은 1일자로 종신보험은 7~14%, CI보험은 2~10%, 정기

■ 제5 경험생명표 주요 내용 (※1: 제4 경험생명표 대비 증감현황)

	평균수명	증감	사망률	입원직용률	입원생율
남	76.4세	3.6세↑	19%↓	16%↑	3%↑
여	84.4세	2.7세↑	16%↓	25%↑	18%↑

■ 상품별 보험료 증감현황

상품	보험료변동(%)
연금	+15
암·건강보험	+10
입원비보험	+20~25
변액유니버설	-30
종신	-28
정기	-15

▲ 경험생명표=보험개발원이 일정기간 동안 총 보험 가입자의 성별, 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해 통계화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게 된다.

2002년부터 3년에 한번씩 작성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말 '제5 경험생명표'가 작성됐고 보험사 회계연도인 4월에 맞춰 시행키로 해 올해 4월부터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제5 경험생명표는 이전 생명표에 비해 사망 관련 위험률은 줄어든다고, 입원 등 치료보장 위주의 위험률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사망보험료 내리고 질병보험료 올라

보장내역 등 자신에 맞는상품 선택을

보험은 10~20%를 내렸다.

동양생명은 종신보험과 CI보험은 12~20%, 정기보험은 20% 인박 인하한 반면 암 보험은 10% 가량 인상했다.

생명보험사가 파는 연금보험의 경우 과거 가입 조건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5~13% 감소한다.

▷손해보험 압특약 남성 내리고, 여성 올라=손해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붙는 암 보험료의 경우 남성은 내리고 여성은 오르며 질병사망을 보장하는

특약보험료는 남녀 모두 인하됐다.

삼성화재는 암 보험료(15년 만기, 15년납, 40세, 암 진단비 1천만원, 수술비 300만원, 입원비 일당 5만원 기준)를 남성은 3.4% 내리고 여성은 22.5% 올렸다.

LG화재는 암 발생 담보 보험료의 경우 연령에 따라 남성은 8~21% 내리는 반면 여성은 21~25% 올리고 질병사망 보험료는 남성 21~25%, 여성은 0~17%를 인하했다.

동부화재는 암 보험료(80세 만기, 20년납, 40세 기준)를 남성은 24% 인

하한 반면 여성은 18% 인상했으며 질병사망 보험료는 같은 기준으로 남성 22%, 여성 15%를 각각 내렸다.

신동아화재는 암 사망이나 암 발생 담보 보험료의 경우 남성은 9~20% 내렸지만 여성은 21~50% 올렸다.

이들 특약 등으로 구성되는 80세 만기 장기보험이나 통합보험의 보험료는 회사와 상품별로 최저 1~2%에서 최고 15% 인박 인하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회사별로 사업비와 손해율을 반영해 4~5% 인박 인상됐거나 오를 예정이다.

또 차량 수리와 견인을 위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보험료도 2천600~5천원 가량 오른다.

이와 함께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물리는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음주·팽소니사고 25~50%, 신호 및 속도위반·중앙선 침범 사고 14~25%)은 없어진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업 소식/

삼성전자, 에어컨 20만~50만원 보상

삼성전자는 오는 30일까지 타사 제품까지 포함해 사용하던 에어컨을 반납하고 신제품을 구입하면 20만~50만원을 보상해 준다. 이 기간 행사제품인 '하우젠 홈멀티 에어컨'을 구입하는 고객은 최대 62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또 오는 15일까지 유럽풍의 다마스크(Damask) 패턴이 적용된 에어컨을 구입한 선착순 고객 2천6명에게 휴대전화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는 다마스쿠 패턴의 스킨 1돈을 증정한다. 아울러 1977년 생산된 삼성전자 에어컨 최초 모델(SRA-090S)을 갖고 있는 고객중 30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추첨해 신제품 에어컨 증정 등 100만원 할인혜택을 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200여명 채용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12일 입사지원서를 받고 이달말부터 서류전형 등을 통해 200여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채용분야는 금호타이어·금호고속·금호건설·아시아나항공 등 10개 계열사의 재무·기획·연구·영업분야로 토익성적을 보유한 4년제 대학 졸업자나 8월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연구직은 석사학위 소지자, 기술직 등은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각각 우대한다.

원서 접수와 세부사항은 채용 홈페이지(kumhoasiana.career.co.kr)를 참고하면 된다.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신경전'

항공업계의 견원지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는 항공기 안전도 아시아 3위 자리를 놓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한국판 뉴스위크가 항공안전 조사기관인 '플라이트세이프 컨설턴트'로부터 2000년~2005년 284개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도 평가 결과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자사가 세계 12위, 아시아 3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일본판 뉴스위크의 항공 안전도 조사에서 아시아 3위 자리에 올랐던 아시아나항공은 발끈했다. 일본판 뉴스위크는 지난 2월호에서 플라이트세이프 컨설턴트의 1993년~2005년 항공기 안전도 자료를 분석, 아시아나가 세계 18위, 아시아 3위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는 "한국판 뉴스위크는 원자료에서 대한항공의 사고가 빈발했던 90년대 자료를 빼 공정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전남대서 채용 설명회

우리은행이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공채를 위한 채용설명회를 4일 오후 2시 전남대 국제회의동 동봉홀에서 개최한다.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은행측에서 정준모 팀장과 나교환과장 등이 참석해 최근 은행권의 채용방향과 방법 등에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으로 나뉜 신입행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원서는 10일부터 18일까지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 접수한다.

통합 신한은행 공식 출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이 합병한 통합 신한은행이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1일 공식 출범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한금융그룹 라웅찬 회장과 이인호 사장, 신한은행 초대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공식출범을 선언했다.

조흥은행과 통합한 신한은행은 이로써 총자산 163조원, 종업원 1만1천400여명, 지점 964개 등을 보유해 국민은행에 이어 국내 2위 은행으로 올라섰다.

신한은행은 통합 슬로건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 더 뱅크(The Bank) 신한'을 내걸었으며 살아숨쉬는 은행, 도전하는 은행, 민중적이고 사랑받는 은행을 경영목표로 제시했다.

신 행장은 취임사에서 "내부정비에서 매달릴 시간이 별로 없다"며 "모든 면에서 완벽한 통합을 신속하게 이뤄낸 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금융시장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직원 1인당 인력개발 예산을 국내 100대 기업 중 최고수준으로 책정하겠다"며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당당히 겨루는 대한민국 금융의 에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작년 유류세 24조원...1인당 50만원 꼴

지난해 원유와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합친 유류세가 24조3천억원에 달해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5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원유 수입관세, 휘발유·경유의 교통세·교육세·주세, 등유와 부탄 등에 붙는 특수세·교육세 등을 합친 세금은 23조3천400억원, 원유 수입부과금과 등유와 부탄의 판매부과금 등은 1조1천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유류세 총액은 24조3천억원에 달해 2004년의 22조4천800억원에 비해 8.1%(1조8천2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재건축 개발부담금 '종이 호랑이' 우려

예상보다 높지 않고 부과대상도 적을 듯

정부가 8월부터 물리기로 한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높지 않고 부과대상 단지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움직를 제한,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반시설부담금,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첩첩이 쌓여있고 이에 따라 개발이익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부담금 크고, 집값 많이 오르면 제외= 2일 부동산건설협회사인 휴엔파트너스가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조합원 추가부담금 윤곽이 드러난 서초구 반포 주공3단지 사례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개발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주공3단지는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 시점인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2003년 6월)부터 준공 때(2009년 3월 예정)까지 6년간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아파트 19평형의 시세는 5억5천만원. 입주 시점에 이 평형대로 배정받은 35평형의 시세를 14억원(평당 4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8

억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금액에서 공사비·세금 등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관리처분계획상) 3억9천800여만원과 2009년 입주때까지 서초구의 정장 집값 상승분인 4억3천200여만원(5억5천만원×78.6%)을 빼면 조합원당 순수 개발이익은 1천900여만원에 불과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3천만원 초과)이 되지 않는다.

▷큰 평수, 저층 단지만 대상될 듯 = 전문가들은 일단 앞으로 개발부담금을 낼 가능성이 높은 단지도 강남구 개포 주공, 강동구 고덕 주공·문촌 주공, 송파구 가락 시영 등 강남권 저층(5층) 단지를 꼽는다. 재건축 움직를 상층권이 커 큰 평수로 넓혀가는 조합원이 많고, 일부는 일반보양 수입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재건축추진 입주하는 평수가 클수록 개발부담금도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단지는 반포 주공3단지에 비해 움직를 낮고, 임대주택은 더 많이 지어야 하며(움직를 증가분의 25%), 기반시설부담금도 내야 해 집값 상승률에 따라 부담금 납부액이 크지 않거나 아예 부과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민들 아파트 분양받기 힘들어진다

총부채 상환 비율 도입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됨에 따라 서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DTI 규정이 아파트를 살 때뿐만 아니라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DTI규정이 적용된다. DTI는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의 비중으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는 40%를 넘을 수 없다.

DTI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과 이미 받은 대출금 등을 면밀하게 따져 대출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3년짜리 대출을 받을 경우 5천만원까지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담보대출비율(LTV)만 적용돼 집값의 40%인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축구경기 '푸드아트'

CJ(주)는 2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채소와 케첩 등 식재료를 이용해 축구경기장면을 연출하는 푸드아트를 선보여 매장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고가 2주택 양도세 실효세율

1주택자의 최고 6배

고가의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1채를 팔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내년 이후 급증하게 된다.

2주택자가 매각하는 10억~15억원 고가주택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내년에는 49% 안팎으로 1주택자에 비해 최고 6배

가량으로 뛰기 때문이다.

2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실패아파트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이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서울검사서	정규직 비과과검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4	062-369-0790
㈜드림랜드	일본관련 여행업무 내근직 O.P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4	062-227-4404
㈜새우리	도시계획/조경설계 분야 전문가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05	011-640-6253
㈜퍼시스 광주센터	영업지원 여사원 (캐드, 레이아웃, 렌더링)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4/05	062-943-4600
텔레서비스㈜	하나로텔레콤 광주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06	02-2163-4125
신원전자정밀 주식회사	생산관리/ERP 담당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944-6471
㈜아인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07	062-601-7203
D.I OUTDOOR (동일물산㈜)	경리/회계업무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7	062-954-3585
㈜모노디자인	경영지원팀 경리회계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4/10	062-462-3433
일국건설㈜	토목시공기술자/공무 신입 및 경력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384-0019
텔레이안티내셔널	레드망고 광주중앙점 - 매니저 및 아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11-9606-3673
전시연연구소아텍	CAD 캐드 인테리어 경력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10	062-433-100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